

## 수의사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제언

박 근 식\*

### 머리말

우리들은 자기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태어났고 사회는 일정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가 갖는 생활방식에 따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 생활방식으로서 습속(習俗)이라든지 도덕, 법률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며 습속이나 도덕, 법률은 다 같이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윤리(倫理)는 무리(類), 또래(輩)의 이치(理致) 또는 도리(道理)를 말한다.

수의사의 위상 정립의 경우 수의사의 개인 또는 무리의 차원에서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회나 시대의 요청에 따라 법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이들 모두가 수의사가 아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위상을 높여 주는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의사란 직업에 종사하는 개개인이나 그 무리가 능동적으로 정립하여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인정을 받는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의사에게 부여된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윤리 도덕관을 확립하고 지켜 나아가므로써 수의사의 위상을 정립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수의 분야의 역할

우리나라 수의 역사가 멀리 고려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하여 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여하는 방법은 달랐다. 특히 농경생활에서 축력에 의존할 때나, 운송수단에 축력을 이용할 때의 수의술의 기여도는 더욱 그러하였고 또 멀리 문명초기에

도 모세의 율법에도 동물의 가식(可食)여부를 판단하는 원시적인 일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사회활동에 깊숙히 참여하여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서 모든 동물의 생명현상이나 질병을 막기 위한 기초학문에 이르기까지 수의학 분야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분야의 위생과 안전성 분야에서도 기초과학분야에서 실무에 이르기까지 봉사 또한 도외시 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련분야에서도 수의사들의 역할이 컸다. 이 분야에서의 임상이나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의 공중위생에 기여도 이외 인간과 애완동물과의 관계에서 "情"을 주고 받아 인간 문화속에서 이제까지 인간 문화속에서 情의 세계는 학문적 연구대상으로는 아직 취급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그리고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물질문명의 최대의 혜택속에서 살아 온 인류들은 동물에 대한 무이해와 무관심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건조하고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처참한 전쟁이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이 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식탁에 자주 오르는 빵에 버터를 발라서 먹는 것이나 커피에 밀크를 타서 마시거나 삶은 계란이나 소세이지, 햄 그리고 점심에 먹는 닭고기, 저녁에 먹는 쇠고기를 비롯해 서 된장찌개에 넣는 고기조각, 몸 보신을 위한 곰국 등 허리띠, 옷, 구두에 이르기까지 동물로부터 섭취한 것이다.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섭리로 제공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뒀안길에서 수고한 따뜻한 수의

\* 가축위생연구소장·본회 수의무 및 윤리위원

사의 손길이 닿인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 외국인들의 경우나 기독교인들은 식사 전에 제공된 음식물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습관을 흔히 본다.

최근에 와서 동물성 식물을 과하게 섭취하여 비만(肥滿)으로 고혈압, 심장병 때로는 어떤 종류의 암(癌) 등의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식욕 혹은 편식에 기인된 현상이지만 동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동물과의 관계는 사회학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많다. 생명의 존엄성은 동물의 죽음에서 배우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의 범죄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동물을 개재하여 공헌하는 방향의 바람이 일고 있다. 또 의학적 측면에서 환자와 동물과의 접촉 또는 관망으로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어 인간의 질병 치료효과가 상승되어 애완동물의 가치성에 대하여 재인식하게 되었다.

지난 1983년 10월에 비엔나에서 Human-Pet relationship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앞으로 애완동물을 인간과 더불어 산다는 뜻에서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imal)로 부르도록 제안되었다.

## 동물 애호법과 동물의 학대

1989년 대한수의학회가 주최한 “인간과 애완동물”의 심포지엄에서 필자가 주제로 발표한 「한국에 있어서의 동물보호 관리방안」(대한수의학회지(1989) 제 29권 제2호 부록 : 춘계 학술심포지엄 ; 53-72)이 노태통령 구라파 순방시에 제기된 육용견의 학대 도살에 대한 세계적 여론의 대응으로 채택된 “동물보호법”도 수의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동기가 부여 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도 담즙 채집을 위해서 꿈으로 부터 쓸개즙을 튜브로부터 뽑는 보도를 보고 온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국민들도 동물애호사상의 소홀로 보아진다. 뿐만 아니라 부정식품 단속 때마다 물 먹인 소와 수의사가 등장한다.

「오오 기괴한 세상, 조심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여! 조심할 지어다.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된다」세익스피어의 희곡 오셀로에 이

러한 주문(呪文)이 같은 대사가 나온다. 세상만사 무엇하나 도무지 믿을게 없다는 듯 철저하게 불신(不信)에 사로잡힌 오셀로 식 사고의 절규로 들린다.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만 본다는 피해망상의 발로이다.

## 현대사회의 시대상

국민의 73.4%가 정직하기만 해서는 잘 살기 어렵다고 보며 30%는 법대로하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서울대학교육연구소에 의뢰한 이념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의 하나다. 도덕과 법의 권위가 무참하게 추락된 우리사회 풍토의 단면을 새삼스레 드러 냈다고 할 만하다. 도덕의 기본이 정직이며 질서유지의 규범이 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만큼 두려운 현상이 아닌가. 오셀로 처럼 떨며 외칠 수 밖에 없다.

흉악한 범행을 식은죽 먹듯이 하는 세대에서 무도덕 무법성의 모습을 보게된다. 정직하다 보면 못살고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 일 것이다. 정직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우습게 여기게 한 이유중의 하나로 제도 와 사회구조의 모순도 지적함직하다. 이 모순을 꾸준히 제거하는 의지와 작업이 곧 개혁이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갈망했던 문민정부의 개혁의 의지가 여기에 있고 개혁의 대상을 바로 한국병이라 하였다. 늦출수록 병은 깊어만 갈 따름이다.

「법이 좋은 줄 알고 이를 지키는 자는 법을 잘 지키는 자이고 법이 잘못 되었음을 알고 고치는 자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명나라 철학자 方孝儒가 갈파했다. 이제 정직해야 잘 살며, 법을 지켜야 손해가 없다는 건전한 생각이 자라도록 고칠것은 과감하게 고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수의사의 윤리 강령

우리 수의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다짐과 윤리 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일이 바로 긍지를 갖게 한다. 긍지는 자신감에서 생긴다. 믿는 바가 있어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이다. 자신감을 갖기 위한 가치관의 기준이나 수의사로서 익히고 배워야할 기술영역에서도 사회를 이끄

는 지식을 꾸준히 닦아야 한다. 그렇다고 교만은 실속이 없이 잘난체하는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긍지를 갖고 일을 해야 보람을 느낀다. 수의업에 애정과 양식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만하면 거칠어지고 역효과를 내고 만다. 무턱대고 수의사로서 잘난체 하다보면 남의 웃음거리가 되고 과오를 저지르기 알맞다.

필자는 수의사의 직업에 대한 “수의사의 선언”을 소개하고 이 선언에 포함된 “수의윤리·도덕”을 준수해야 할 실천 강령을 제시하여 1991년도 새로 태어나는 수의사들에게 바친 글(대한수의사회지 제 27권 제3호 129-132)에서 밝힌 바 있다. 그 후 경향각지의 수의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우리 수의 직업에 대한 윤리 도덕관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알아 대한수의사회에서 채택하도록 권유한 바 있다.

이의 수의 직업인에 대한 윤리 강령의 전문(前文)에서 말 못하는 짐승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스스로 발생하는 자연적인 인정이다. 따라서 동물을 맞아 합리적으로 육성, 사양하며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축산이다.

축산진흥과 동물자원의 보존은 수의학의 지식과 기술 없이는 바랄 수가 없고, 우리들은 수의사로서 수의학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축산업의 발달과 자연자원중 동물자원의 성실한 보존 유지를 시도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우리들은 수의업종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높은 도의심을 갖고 동업에 있어서 상부상조하여 평화와 문화를 창달하는 새로운 시대의 건설에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우리들에게 부과된 사명을 다할 것을 염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총의를 갖고 수의사로서 도덕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정하며 이에 의해서 우리들이 협력하며 사명을 달성하는데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다짐한다. 여기 강령에 담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에 대한 책무
- 2) 사회생활인으로서의 책무
- 3) 홍보 책임
- 4) 비난방지
- 5) 환축에 대한 책임
- 6) 비방방지
- 7) 주치권의 존중
- 8) 대진의 도의
- 9) 응급처리의 도의
- 10) 학술상의 책임
- 11) 교육, 연구종사자의 협력
- 12) 공무원 및 단체원의 도의
- 13) 입증의 성실
- 14) 판정의 공정
- 15) 방역의 적정
- 16) 품위있는 광고
- 17) 타직업으로부터 침해 방지의 자유
- 18) 동업의 의무 등에 대하여

윤리 실천 강령을 만들어 실천 운동으로 전개해야 할 때이다. 이와같이 수의사들이 참여하는 영역이 넓고 인간과 자연의 모든 분야에서 귀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에서도 적어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수가 6,000명을 넘고 또 수의학과나 수의과대학이 10개 대학에 설치되고 있으며 개방화 시대를 맞아 한국 축산산업도 생산성 향상과 축산의 최종산물인 축산식품의 질적향상 및 안전성에 수의과학이 선도할 시기에 즈음해서 수의사들이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봉사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하겠고 또 이러한 사회에 대한 선서와 더불어 수의사의 숭고한 직업을 수행해 가는데 필요한 우리들의 행동강령을 선포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의사의 윤리관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전국 운동으로 전개하여 수의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겠습니다.